



濁流淸論

제3호 2010년 1월 12일(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홍보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화요활동보고대회

- 일시 : 1월 12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45분
- 장소 : 율곡관 1층 로비

1월 12일(화) 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45분 -12시 45분에 화요활동보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는 차기 총장 선임, 학교 위상 제고 방안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재단의 주의를 환기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 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3호까지 교수회 홍보위원회 주관으로 발행되던 타류청론을 4호부터는 별도의 편집진을 구성하여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집위원장으로서는 사회대 강명구 교수께서 수고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목 차 >

신년인사	1
현안 진행 보고	2
의장이임 대답	3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5
법치, 아주대에서도 길을 잃다	6
덕불이 푸른 술밭에서	7

교수님들께 드리는 신년인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교수회에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과 집안에 두루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캠퍼스 가득히 쌓인 눈들만큼이나 교내의 일들이 여유롭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새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말없이 걱정을 나누고 있던 차에 2009 중앙일보 평가 결과와 입시에서 우리 대학의 대외 위상의 추락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당국과 재단은 당황하면서 확대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교수 쥐어짜기’, ‘재임용-승진 사다리 걷어차기’, ‘교수업적평가 만지작 거리기’ 등 그 제안들은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온 ‘지표관리’와 ‘마른 수건 다시 짜기’와 같은 임기응변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였고 속 깊은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분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낱선 메스만 들고 나선 가짜 의사의 처방 같습니다.

왜 그 원인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들이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학교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모든 업무에 대한 기획, 운영의 종합적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여러 사안에서 책임감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학교 행정의 말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재단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의사 결정과정 하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교수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보이게 ‘빛깔 좋은’ 숫자 놀음만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숫자 놀음이 허구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기회비용을 소진하여 결국은 포텐셜과 재정의 손실만 가져왔음이 분명합니다. 셋째는 지난 10여 년간 재단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우리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러면 재단은 그 권리에 합당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아픔도, 실수도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지 말며’, ‘새 일을 하려면’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진솔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단에 대한 평가는 빠질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회 의장으로서 저는 재단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새 총장 선임이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가야 할 바른 방향과 법적, 도의적 책무, 재정회계의 정직성, 대학과 재단의 바른 관계 등이 실효성 있게 평가되어야 하고 책임감 있고 당당한 총장이 모셔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수님들을 모시고 몇 차례의 아주대학교 구성원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준비로서 우선 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11:45분~12:30분까지) 율곡관 로비에서 ‘화요 활동 보고대회’를 열기로 준비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이 소통의 시간이 아주대학교의 새 날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여 주신 성원에 채삼 감사 드리며,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이끌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개최 될 ‘소통의 시간’에 모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수회 의장 박영무 올림

현안 진행 보고

교수회 홍보위원회

I. 박종구 전 차관 정년보장교원임용 및 부총장 임명건

현재 율곡관 로비에서 플래카드 2인 시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월-금 11:45-12:45). 약 40여 명의

교수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II. 차기 총장 선임건

학내 제단체가 참여한 공청회 실시 후 교수회, 학생회, 직원 노조, 병원 노조가 합의안을 확정하여 10월 11일에 재단 사무처에 제출, 건의 하였으나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출한 선임안은 총장 후보자를 학내 구성원이 추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들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과거 교수들이 독점하였던 선발권을 직원, 동문에게 개방하였고,

재단에 선발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권을 부여하여 재단 참여 정도를 높였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대학내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건의한 이 안에 대해 아무 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재단 이사들에게 편지를 보내(V항 참조) 총장 선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III. 교수회 관련 정관 변경, 규정 신설건

재단 이사회는 제 277차 이사회 (2009.8.28)에서 정관 제 32조 3항을 “대학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근거를 확보하고 재단 사무처 주도하에 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제 278차 이사회 (2009.11.06)에서 평의원 추천에 관한 또 다른 정관 조항인 제 32조 1항 1호를 개정하여 교수회의 교수 평의원 추천권을 박탈하고 새로 만든 평의회 추천 규정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총장과 개방이사의 반대로 정관 개정요건인 재적위원 2/3 찬성 (재적 12명, 참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장은 12일 후인 11월 18일, 제 279차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논란 끝에 정관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교수평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총장과 개방이사는 정관 개정에 반대하였으나 출석위원이 10명(찬성 8명, 반대 2

명)이어서 정관 개정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로써 교수회의 교수평의원 추천권이 박탈되었으며, 정관에서 교수회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학평의원이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어 학칙변경의 심의, 예결산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견제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범을 보여 왔던 것과, 그 활동에 있어 교수대표들이 중추적으로 활동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이사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과대학 별로 평의원 선발위원회 위원 선거가 총장과 학장들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수회는 상기한 정관 개정과 평의원 선출 규정의 신설이 잘못된 일임을 천명한 바 있으나 총장과 학장들의 주관 하에 진행된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IV. 교수회 의장 선출

교수회 의장인 이일영 교수(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가 개인 사정으로 12월 18일부로 교수직을 사직함에 따라 교수회 의장 선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과대학 박영무 교수

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박영무 교수는 12월 19일부터 2011년 2월 까지 교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V. 차기 총장 선임건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교수회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재단과 대학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외부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아주대학교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 역량도 끌어 올 수 있는 리더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는 것과 바와 같이 현 서문호 총장의 임기만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쉽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쉽이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원활히 결집해내기 위해서는 총장 후보자 본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학내 구성원들의 적절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

에서 교수회는 총장후보자 선임을 위한 규정(안)을 만들어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대표간의 회합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된 후, 직원 노조, 의료원 노조 및 학생회의 동의를 첨부하여 이를 재단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수회는 이 (안) 혹은 이 (안)을 참고로 재단에서 준비한(안)이 이번 이사회에 상정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규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좋은 총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모시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장 선임에 관한 어떠한 (안)도 이번 이사회 안건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많은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 시간 여유가 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안건이 상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총장을 모시기 위한 고민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이사님

들께 환기 시켜드리고 이를 위한 시간표에 대한 논의는 이번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언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더불어 교수회의 학내 단체들이 제안한 규정(안)과 설명문을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교수회와 학내 단체들은 총장 선임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재단의 권한을 인정하고 후보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고려를 담아 이 (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설명문과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일영 배상

의장이입 대답

이재호(의학부 교수)

그 동안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던 이일영 교수(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가 개인사정으로 12월 18

일자로 교수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이일영 교수회 의장의 소회를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호 교수(이하 생략) : 박종구 전 차관의 정교수 임용과 교무부총장 임명이 유발된 현안에 대해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일영 의장(이하 생략) : 저는 이 일을 박종구 전차관 개인의 임용과 임명에 관한 문제라고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대학에 대해 재단에서 행사해 온 불합리한 간섭과 불합리한 결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간 재단이사장이 대학에 가지고 있는 견해와 태도가 비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대학교수들과 대학사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오만한 태도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일관된 태도를 취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재단이사장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에도 잠깐 비쳤지만,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총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것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을 종결

짓고 밀어붙인 것, 이것이 이사장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중심인물은 이사장이지, 총장도 아니고 박종구 씨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장(의견)이 무시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완전히 무시된 거죠. 총장 스스로가 나와의 개인적인 대답에서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단순한 추리가 아니라 fact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이사장이 이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무렵에 이사장과 김우중 회장과 재단 상임이사가 회동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도 있고..., 어

려 가지 다른 정황을 미루어 봐도 이것이 단순히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 졌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무부총장 안도 학교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준비한 것이지요. 그것도 총장은 학교 교교자로 바뀐 안을 회의장에 가져야 알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미리부터 준비된 각

본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에 저항하는 총장의 의지를 꺾고, 이사장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고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사장이 그간 학교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사장이 부임할 당시부터, 이사장은 새로운 이사회를 조직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특정한 임무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 김준엽 전 이사장과 이사들이 만기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전원이 사퇴를 했고 새 이사진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사장은 학교의, 있지도 않던 1,000억원의 빚을 구체화해서 어음을 끊었습니다. 이사장은 대우의 몰락과 함께 아주대학에 1,000억원의 부채를 전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부임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다가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겪었던 학교 사태를 초래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고.. 의료원에 강제로 기채 시켰던 313억을 금년부로 다 물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그 동안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하상가에 대한 권한을 재단에서 접수해서 재단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또 이사장이 깊숙이 의료원 운영에 개입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이 문제는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학교가 78억원 인가를 교비를 가지고 빚을 갚았는데, 교비에 대한 보상이 재단으로부터 전혀 안 이루어진 채로 아직까지 끌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사장이 들어와서 권한이 이사회로 모이도록 모든 규정을 바꾼 것, 이것이 또 우리 학원의 자율화에 엄청난 손해가 된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김준엽 이사장 시절에는 이사회가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지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plan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가를 위해 노력했던 이사회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사회는 학교에 주어졌던 권한을 이사회에서 가져가서 모든 권력을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심지어는 7,8급 직원의 인사까지도 이사장이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모든 plan과 학교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이 아니

고 계속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점점 더 그 power를 키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의료원의 예를 들면,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료원 보직자 입에서 “우리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하는 게 비전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대학에서 총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2023비전을 선포할 때 이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뭔가 진취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뭔가 하려는 의지를 돕는 게 아니고 꺾는, yes 이사회가 아닌 no 이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10년 전의 이사회와 다른 점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대학을 일류대로 가는 쪽에서 삼류대로 가는 쪽으로 끌고 가는 나쁜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사장은 부임 초부터 의료원을 깨고, 병원과 의과대학을 분리시킨 다음에 병원은 재단 소속으로 끌어들이고 의과대학은 본교에 합류시키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왔고 실제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이 박재운 총장 때였는데 당시 의료원 보직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김우중 회장이 개입해서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아직까지 의료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의료원 구조가 과거의 구조와 아주 달라진 것-아까 얘기한 지하상가 뿐 아니라 모든 병원 경영에 있어서 간섭이 극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납품과 관련해서도 납품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재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기초실장도 모르는 돈도 있는 것 같고요.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옛사람이 아직도 밖에서 원격조정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재단 이사장이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있으리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학내 상황에 대해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교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면, 그리고 현 학내 상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해법은 윤원석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 이사회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까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이사장과 이사회 구조로는 학교발전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김우중 회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떠나, 이 분이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으로는 설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설립자의 양심으로서 아주대학이 제대로 가길 바라고 아주대학이 발전하길

바란다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안되니까 좀 더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와 계속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계속적으로 support해서 아주대학을 최상급의 일류대학으로 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one way ticket을 끊어서 왔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주대에 애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써 왔고 지난 15년 동안 거의 매일 교정을 포함해서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와는 반대로 지금 점점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도 언젠가는 바로 잡혀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발전하는 아주대학이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고 기도할 겁니다. 내 소견으로는 현재의 이사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떻게든지 뭔가 좀더 No가 아닌 Yes 이사회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고 support하고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이사회가 되어야만 아주구성원들이 바라는 2023 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와멀리 떨어져 있던 대학이 올라가서 10위권에 들어가고 우리는 10위권에서 밀려나와 18위까지 내려오고. 이제 지금은 작은 차이 같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이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돈이 없더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밖에서 돈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들어온다. 투자도 안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이사장으로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는 취약한 독재권정하고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허약한... 앞에서는 모두 머리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가장 취약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사장에 대한 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접하면서 일해본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소리 내서 얘기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앞에 가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겁니다. 이사장의 휴먼

팩터가 크고, 그게 소위 이너써클 때문에 더 강화되고. 이사장 얘기가 나오면 몇몇 이사들이 yes yes하고, 그 방향으로 쪽쪽 나가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는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번 박종구 전차관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교수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저의 10년 이상의 이사장과의 경험 이런 것이 토대가 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제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 개인적인 판단 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니다. 교수회가 공식 기구인 만큼 총의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은퇴를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사장이 정착 해야 할 일들은 제쳐 두고 교수회 무력화에 골몰해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저는 떠나지만 우리 대학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 가?

김상배(전자공학부 교수)

역사의 유구함과 사회 변화의 가속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진리의 탐구, 진리의 전수, 사회에 대한 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대학은 진리탐구 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우월적 위치를 상실하였다. 수많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들의 존재와 활약상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독점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지 오래이다. 수많은 대학 수준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사설 교육기관들의 난립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리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대학의 존재를 위협하는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일까?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사회에서도 대학의 위상이 건재하여 그 사명을 다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것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학문과 진리탐구의 자유이다. 새로운 지식은 옴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틀이나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학문적 부흥기가 기존의 지식체계가 무너지고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일 것이다. 연구의 이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학문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순수한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학문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학문의 자유야 말로 대학을 가장 대학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잃게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토대로 살아간다 할 것이다. 진리 탐구에 있어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빠른 세대교체를 생각할 수 있겠다. 대학의 연구진은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연구 활동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편으로는 미숙하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미숙하다는 것이 기존 사고의 틀과 관행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신진세대의 자유로운 마인드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마인드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음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단기적 성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설 교육기관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대학이라는 학문의 성역 유지, 발전시키려면 재정적, 제도적, 정신적 후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세계 100대 대학은 세계 100대 부자 대학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의 위상은 재정지원과 직결된다. 미국 유수대학의 천문학적 재정규모가 미국의 대학교육을 최고로 만들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연구에도 재원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데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제도적, 정신적 후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학이라 하더라도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국가를, 사립대학들이 재단을 후원자로 두

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대학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도 많다. 학문의 자유와 학문적 수월성을 지켜나가려는 구성원 의지와 노력,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 그들의 학문적 자유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자세, 대학 자체의 비전과 그의 실현을 향한 열망, 효율적인 운영체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등, 얼핏 스치는 것들만 모아도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보면 대학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다. 사회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없이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발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부침이 대학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

이제 눈을 우리 내부로 돌려 보자. 아주대학교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대학의 재정적 정신적 후원자여야 할 재단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내부는 어떤 모습인가?

현 시점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로서 재단의 비교육적 사고와 무능함, 독선과 아집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재단으로서 교육철학이 있는가? 대학다움의 근원적인 요소인 자유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재정적, 제도적, 정신적 지원을 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에 앞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대우학원재단의 제 277차 회의록(2009년 8월 28일 회의)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교수 승진과 보직교수 임명에 대한 이사장의 발언의 근저에

깔린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만한 재단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대학을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재단이 없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 대학의 순위는 7위에서 18위로 밀려났다. 이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재단의 의지와 자세, 능력을 때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의 비전인 비전 2023은 공유되지 못하고 메아리로 남아 있고, 우리의 리더십과 팔로우어십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월에 이루어진 부총장 임명으로 우리 대학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었다. 정의의 실종보다 더욱 더 아픈 장면은 정의의 실종을 보고도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위기로부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 출구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의 새 총장을 추대하는 일일 터인데, 그 출구마저 가로막혀 있다. 그런데, 그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 또한 재단이다. 직무무기이고 태만이고 무책임이다. 이것이 눈물 나도록 서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유는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몫이다. 정의도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가치이다. 우리가 우리 대학을 지키고 우리 대학에 정의가 살아있게 하려면 정의의 실종을 눈앞에 두고도 애써 눈감고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행동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이다.

법치, 아주 대에서도 길을 이다

오동석(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물 입구에 ‘애완견 출입금지’ 팻말이 있다. 한 사람이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때를 쓴다. 고양이란 말이 없으니 들어갈 수 있다며 법대로 하잔다. 누구라도 그것이 억지임을 안다.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는 권력자의 탐욕은 이 억지를 법치로 변질시킨다. 정의의 여신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지점이다. 이쯤 되면 법학자는 법을 고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주대에서도 재단이사회가 학내 문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교수회를 내치기 위해 벌인 일들이 고양이 주인 꼴과 다르지 않다. 이사회는 대학평의원 대표를 선출할 교수들의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농단하였기 때문이다. 권력자가 법을 만들기만 하면 그것이 법이 된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인류사적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의 결론은 정당성 없는 법은 폭력의 외피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세 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이사회의 생채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제277차 이사회(2009.8.28)에서 급하게 처리한 정관 개정 내용부터 보자. 개정 전 정관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가 각각의 대학평의원 대표를 추천함(정관 제32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정관 제32조 제3항). 그런데 정관 제32조 제3항이 ‘규정’으로써 대학평

의원 추천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칙은 총장이 관장하며 규정은 이사장이 관장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각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던 대학평의회 선출 절차제도가 이사회의 손아귀로 들어간 것이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의 것으로 뺏어오기는 했지만, 그 실질적 효과에서는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 정관에는 교원 대표 대학평의원을 교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항(정관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관이 규정보다 상위의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는 교수회의평의원 대표추천권을 뺏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관 제38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정관과 충돌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제1차 정변은 정관만 누더기로 만든 채 실패하였다. 그래서 제 278차 이사회(2009.11.6)에서는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관에 남아 있는 교수회의 흔적을 마저 지워야 했던 것이다. 하나는 교수회가 교원 대표 대학평의원을 추천하도록 한 정관 제32조 제1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정관 제38조이었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던가. 제278차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정족수인 8명에 한 명이 모자라 규정 제정안을 상정도 못한 채

서둘러 막을 내렸다. 눈길에서 넘어진 사람은 망신당했다 느낀 만큼 재빠르게 일어나는 법이다. 초고속스피드로 일사분란하게 소집된 제279차 이사회(2009.11.18)는 마침내 정관에서 교수회의 흔적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를 너무도 친절하게 ‘규정’ 해 주었다.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다. 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하고, 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 내 법치의 향도원칙이다. 그 원칙을 받들어 재단은 재산을 출연하였고, 그 뜻을 지속하고자 경영을 담당한다. 대학의 법치가 갈 길은 재단 아닌 대학 중심의 길이요, 대학의 헌법인 학칙 중심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학문과 진리의 전당에서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그 권한을 행사해서야 어찌 대학다울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사립학교법이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회제를 도입한 것은 그 무지막지한 칼날을 조금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었던가. ‘사립학교 개정안’ (2004.10.20)은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주대 교수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스스로 뽑아 개방이사 추천에 관여하는 일은 사립학교법 개

정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다. 정관에서는 교수 대표를 몇 명 뽑아야 하는지만 정해 주면 된다.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전체 교수에게 있고, 그것은 곧 전체 교수의 조직체인 교수회의 몫이다. 교수들이 그 정도는 알아서 할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충분하고 또한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78회 이사회의 회극에서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이 하나 있다. “대학평의회를 선출하는 주체의 의미는 전체 교원 단체이지 현재 학교의 상설 기구로서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교수회는 아니라는” 이사장의 말씀이 그것이다. 대학평의회 선출 주체는 ‘전체 교원단체’ 이고, 교수회가 바로 전체 교원들의 단체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두 단체가 뭐가 다른 건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통 모를 일이다.

‘해쳐 모여! 단, 그 교수들이 그 교수들이지만 다시 모일 때는 이사회에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줄을 서야 한다?!’. 그렇게 아주대 교수들은 유치원생이 되었다. 재단 또한 스스로 모양새를 구긴 꼴이다. ‘학교 경영’을 책임져야 할 재단이 고작 교수들 대표 뽑는 일을 챙겨주기 위해 몇 차례나 이사회를 열어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공간도 없다. 아주대에서 길을 잃은 법치가 헌법이 이끄는 대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길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그 길에서만 학생도 교수도 직원도 학교도 재단도 모두 빛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법치가 길을 잃을 때면, 헌법정신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만이 북극성처럼 빛난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편집인 인사—

강명구(사회과학부 교수)

대학 건물로만 치자면 아주대 건물은 멋이나 흥취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무미건조의 성냥갑이다. 물론 어설픈게 멋을 내려다 촌티가 주룩 주룩 흐르는 과오는 면했다는 점에서 본의 아니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주 캠퍼스 풍광이 최악의 선택을 벗어나는데 일조를 한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무위(無爲)의 미덕 말고 하나 더 있다. 근년 들어 세월의 무게를 더해가는 무성해진 나무와 숲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상이 고귀하게 씩씩한 낙타장송들은 캠퍼스를 드나들 때나 혹은 산책길에 더 없는 자연의 미덕을 선사한다. 저키 크고 우아한 소나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멋들어지면서도 환출한 기상을 품을 수가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묻곤 한다. 생각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매섭게 춥고 게다가 흰 눈까지 내린 겨울날, 언덕 위에 한 그루 소나무 제 홀로 푸르른 독야청청(獨也靑靑)도 좋지만 아주 동산의 소나무들처럼 더불어 푸르름 또한 못지않게 좋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이란 곳이 바깥일에 대해서는 신문이고 방송에서 그도 못하면 강의실이나 교수 휴게실에서 한 마디씩 하면서도 정작 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통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리 스님 제 머리 깎기 쉽지 않다지만 고여서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고, 순환하지 않는 혈액은 심장 박동의 정지를 뜻합니다. 사람 모여 사는 이치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공동체는 박제화되고 그런 공동체는 죽은 지식인의 집단이거나 원자화된 개인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쟁투를 벌이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무리 웹메일로 알리고 공문서를 보내면 무얼 합니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목직하고 도도한 대학 사회의 담론이 형상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학으로 치자면 중차대한 사안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또는 교수사회의 무관심으로 몇 몇의 개인의견이 공론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개인적 막무가내가 대학의 정책으로 강권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야 바위덩이 같은 부메랑으로 굴러내려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해 적당히 편의주의적 봉합으로 결말 나는 것을 적잖이 경험하였습니다.

압니다. 귀찮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담쌓고 제 할 일만 하면 대학에서 생존하는데 큰 불편 없지요. 어찌 보면 대학이란 곳이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없지 않음 압니다. 제 각자의 학문 영역에서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필히 자율과 개성을 대학사회의 덕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 홀로 푸르기보다 더불어 푸르려야만 하는 피하기 힘든 도덕적 명제에 도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대학사회가 향유하는 자율과 개성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무임승차는 공동체가 향유하는 기본적 덕목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교수회 소식지인 <탁류청론> 4호부터 (더불어 푸른) 솔밭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호마다 대학의 담론(혹은 담론에 이르는 문제점)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신고자 합니다. 애독과 더불어 투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의 고담준론이 우리의 기상을 더욱 푸르게 하길 고대합니다.



《교수회 대의원 명단》

◇ 의장 : 이일영(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5281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공과대학	주동표	화공신소재	2386
	유연우	생명분자	2449
	박 범	산업정보시스템	2426
정보통신 대학	류기열	정보 및 컴퓨터공학	2636
	조중열	전자공학	2380
	이주엽	미디어학	1838
자연과학 대학	하영화	수학	2563
	민철기	생명과학	2621
경영대학	박호환	경영학	2723
	구형건	경영학	2706
인문대학	정경훈	영어영문학	2820
	김 현	국어국문학	2813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사회과학대학	안재홍	정치외교학	2791
	김영진	심리학	2768
법과대학*	소병천	법학	2767
	이준섭	법학	3785
의과대학	신승수	호흡기내과학	5122
	신호준	미생물학	5076
	안재홍	안과학	5255
	이재호	생화학	5053
	백은주	생리학	5042
	정영기	정신과학	5182
간호대학	송미숙	간호학	7013
단과대학 미소속	최운실	교육대학원	2667

* 법과대학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대의원으로 소속변경 작업중임.

무능재단, 독선재단, 아주대는 명들어간다!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대의원회

대학발전 액션플랜, 참여 없인 소용없다!

자연과학대학 교수회 대의원회

의료원에 대한 재단의 지나친 관심, 노 땡큐!

의과대학 교수회 대의원회

재단은 학교의 위상제고를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

인문대학 교수회 대의원회